

'링 사이클' 아힘 프라이어 감독의 한국인 아내 에스더 이 '아리아 무대'

LA오페라의 바그너 '링 사이클' 공연과 함께 남가주 전역에서 링 페스티벌이 한창인 가운데 '오페라협회 보헤미안' (회장 이주현·대니얼 고)은 12일(내일) 오후 5시30분 '링'의 LA 초연을 축하하고 바리톤 조셉 림을 후원하기 위한 제6회 자선음악회를 개최한다. 이 콘서트에는 특별히 LA오페라 '링'의 총감독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아힘 프라이어(Achim Freyer)의 한국인 아내 에스더 이(Esther Lee)씨가 초청돼 수준 높은 음악을 선사할 예정이다.

오페라협회 보헤미안 내일 자선 음악회

독일에 살면서 유럽을 무대로 연주 활동을 하고 있는 소프라노 에스더 이씨는 남편의 링 프로젝트 때문에 지난 해부터 LA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날 콘서트에서 슈베르트의 '비위 위의 목동'과 오페라 아리아들('나비부인' '미탄의 사수' '피가로의 결혼')을 노래한다. '비위 위의 목동'은 슈베르트가 죽던 해에 작곡한 소프라노, 클라리넷, 피아노를 위한 아리아 형태의 트리오로 연주시간이 12분에 달하는 아름다운 곡이다.

오페라협회 보헤미안의 이주현 회장은 "이 곡 하나만 들어도 흡족할 연주

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더 이씨는 "남편 뱃바라지 하나 따라온 미국에서 이렇게 좋은 한인 오페라단체와 인연을 맺게 되고 콘서트까지 하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말하고 "캘리포니아의 유망주 바리톤과 함께 연주하게 되어 더욱 뜻 깊고, 좋아하는 레퍼토리를 들려드리게 돼 가슴 설렌다"고 말했다.

에스더 리씨는 18년 전 독일로 유학, 1999년 베를린 국립음대 성악과를 우등졸업하고 그해 열린 '마리아 칼라스 콩쿠르' 1등을 차지했으며 2000년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에서 오페라 '카르

멘'으로 데뷔했다. 그때 이후 도이치 오페라 오페라 무대에 계속 서온 그녀는 독일과 스페인,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등의 주요 무대에서 실력 있는 소프라노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자선음악회의 수혜자 조셉 림(임경택)씨는 2009년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디션 서부지역 결선에서 2등을 차지한 성악가로, 이날 연주회에서는 스트라우스와 토스티, 거쉰의 곡들과 바그너의 탄호이저 중 '저녁별의 노래'를 들려준다.

서울대 음대와 USC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그는 2008년 팜스프링스 오페라 길드 성악대회에서 1등, 로렌 L. 재커리 전국대회 입상 등 많은 수상 경력이 있으며, 수차례의 리사이틀과 다양한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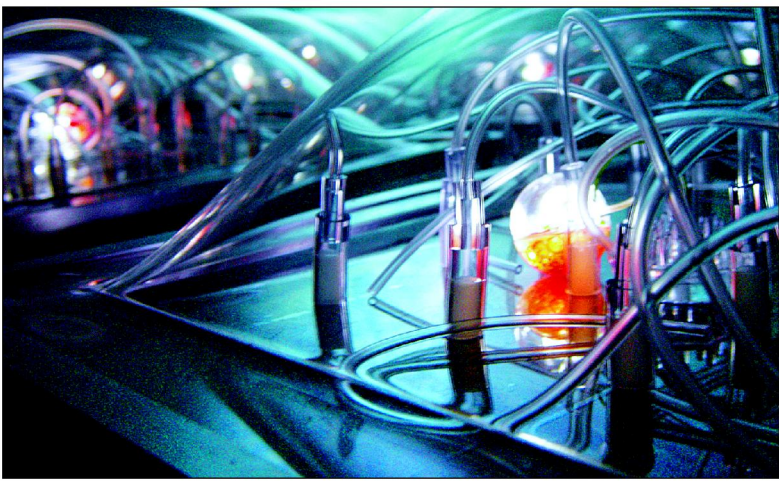
소프라노 에스더 이(오른쪽부터), 세실리아 김, 바리톤 조셉 림씨가 오페라협회 보헤미안의 제6회 자선음악회에서 다양한 오페라 아리아들과 독창곡들을 노래한다.

페리에서 주요 배역을 맡아 공연했고, 솔리스트로서 말러 8번 교향곡, 모차르트 미사곡 헨델의 메시아를 연주했다. 이날 콘서트에는 한국 수원대 교수인 소프라노 세실리아 김씨도 출연, 로드리고의 아랑헤즈 기타협주곡을 편곡한 노래와 베르디와 도니제티의 오페라 아리아들을 노래한다.

김씨는 이탈리아의 살레르노 콘저바토리와 파르마 콘저바토리에 공부했

으며 움베르토 지오르다노 국제 성악 경연대회와 로시니 도니제티 성악대회에서 1등 했고 한국과 이탈리아의 다양한 오페라 무대에서 공연했다.

이번 연주회 참가비는 30달러이며 간단한 다과와 와인도 제공된다. 연주장은 Assistance League 1370 N. St. Andrews Pl. LA, CA 90028 문의 (213)309-5347 (323)842-4880



양미선의 작품 '실체' (Entity). 비디오 프로젝션과 사운드가 함께 사용된 설치작품이다.

올해 초 LA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0 LA 아트쇼를 보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작품은 '갤러리 825'에서 나온 양미선(Meeson Pae Yang)의 '확산' (Dispersion)이었다. 꽤 넓은 공간 전체를 이용한 설치작업이 굉장히 독창적이고 신선해서 깊은 인상을 받았고, 한인임이 분명한 이름을 보면서 어떤 작가일지 매우 궁금했었다. 그 양미선이 6월 12일부터 7월31일까지 런치 스페이스(LAUNCH_space)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LA 아트쇼에 출품됐던 작품 '확산' (Dispersion). 이 작품 중 일부는 현재 LA 국제공항 사우스웨스트 터미널에 설치돼 있다.

'생태계 역동성 표현' 설치작가 양미선 개인전

내일부터 7월31일까지
LA 런치 스페이스 갤러리

LACMA 바로 건너편에 있는 런치 스페이스는 비영리 예술단체 '비주얼 아트 소스'가 운영하는 전시공간으로, 이 전시회의 오픈리셉션(12일 오후 5~9시)은 이날 하루 종일 라크마가 제공하는 '뮤즈 아트워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양미선(30)은 오가네 물질과 인공적 합성 물질들을 정교하게 결합시킨 특이한 조각과 설치작업을 통해 자연과 환경, 그 생태계의 매커니즘을 탐구하는 설치작가로, 뒤늦게 미술을 시작했으나 이미 6회의 솔로 쇼를 갖는 등 주류화단에서 주목받는 아티스트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관심이 많은 그는 특히 인체, 식물, 나무, 해양 등의 생태계를 이루는 극소분자들이 유기적으로 엮인 형태를 확대 창조함으로써 하나의 공간 속에 작은 우주를 만들어간다. 그가 사용하는 재료들도 특이한데 자연물(설탕, 코르크 껍질, 모래, 식물의 이끼, 흙 등)과 인공합성물(시멘트, PVC, 플렉시글라스, 실리콘, 비닐튜브, 형광 아크릴, 메탈 등)이 섬세하게 조화된 유기적 구조물은 인체와 자연계의 세포들을 연상시키는 형태를 보여주며 끊임없이 증식, 확장, 재생이 이루어지는 자연의 성장 시스템을 표현한다.

'축적' (Accumulations)이란 주제의 이번 전시회에서는 '포자' (Spores), '돌' (Geodes) 등의 새로운 작품을 소개할 예정이다.

인디애나폴리스에서 태어나 LA에서 자란 양미선은 고교시절 남동생이 15세에 암 진단을 받고 결국 사망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 아픔을 견디기 위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고 한다. UCLA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으며 도중에 미대로 옮겼으며 2002년 BFA를 받았다. LA의 로렌스 애서 갤러리, 컬버 시티의 JK 갤러리, 토렌스 아트 뮤지엄, 재퍼니츠 아메리칸 뮤지엄에서 전시했고 홍콩과 스위스에서도 초대전이 열렸으며, 베벌리힐스의 에이스 갤러리와 달라스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그의 작품을 소장했고 LA 국제공항에도 설치돼 있다.

LAUNCH_space 5900 Wilshire Blvd. LA, CA 90036

LACMA 뮤즈 아트워크 내일 5개 뮤지엄 무료개방

LA카운티 미술관(LACMA)은 제15회 뮤즈 아트워크(Muse ArtWalk) 프로그램을 12일 오후 12시부터 8시까지 실시한다.

올해 뮤즈 아트워크는 LA 미러블마일 지역에 소재한 5개 뮤지엄들의 무료 입장을 제공하고 이와 연계된 다양한 예술 행사들에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참가 뮤지엄들은 라크마(LACMA), 조지 C. 페이지 뮤지엄/라브레아 타르 핏(George C. Page Museum/La Brea Tar Pits), 피터슨 자동차 박물관(Petersen Automotive Museum), 캘리포니아 공예미술관(California Craft & Folk Art Museum), 건축 디자인 박물관(Architecture+Design Museum) 등이다.

이와 함께 아티스트 토크, 음악 공연, 워크숍, 페인팅 등이 곳곳에서 열리며 뮤지엄 주변에는 푸드 트럭들이 나와 있어 이날 판매 수익의 일부를 라크마에 기증한다.

<정숙희 기자>

오픈하우스

6월 13일 (일요일) 2PM - 5PM

로스펠리스 지역 그림 같은 집

5240 Los Grandes Way
L.A., CA 90027
가격 \$1,899,000

- * 3Bed/2.5Bath 넓은 매스터 Suite
- * 스테인레스 스틸로 잘 꾸며진 부엌
- * LA시와 Ocean 까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View, View
- * 수영장 시설

글렌데일 Verdugo 지역 최고의 콘도 펜트하우스

1155 N. Brand Blvd, #1102

- * 2Bed/3Bath 2,500Sqft
- * 양방향으로 글렌데일 산과 시가 보이는 Views
- * 테라스, 높은천장, 대리석으로 꾸민입구, 마루바닥, Fire Place
- * 넓은 매스터 베드룸, 실내세탁기
- * 3대주차공간, 다양한 스토리지
- * 안전한 시큐리티, 수영장시설

Sotheby's Realty (323)573-9334 (Cell) (323)671-2365(직통)
- Los Feliz - Vivian Kessedjian

진 발레스쿨

무용의 꿈을 가진 미래의 인재를 키우고 있습니다.

원장: 진 최 (Jean Choi)

선화예술 중, 고 졸업
이화여대 무용과 졸업 (발레전공)
비기노비 Smaltzoff Ballet School 수료
Ballet Nouveau 창단멤버
한국 무용교사협회 이사부 회장
미주예술 이사, 2006 K. B. S. 시인 심사위원
제30회 한미의 날 축제 청소년 발레트스 심사위원
뮤지컬 '홍서경' 무용감독
무용칼럼니스트 '진희의 무용이야기'
(스프링클러, 선데이저널, 교차목연재
한미무용연합회장)

Kindergarden Pre School 발레교사
(캘리 몬테소리, 카즈워스, 인디고, 개인보우, LA 오가네미
샌앤드루, 스미일, LA제일, 서부, 시트, 해바라, 1,2,3 세배 니성)

♥ 바기노비메소드 유아발레전문기관 ♥

여름방학 특별 Class

발레+재즈+힙합+
비보이+한국무용+리듬댄스+
미술 = \$300
(8월 21일 2010년 제7회 정기무용발표회)

주부들을 위한 특별뽀뽀 클래스 신설 (월·수 - 1:30pm)

★ 자녀의 잠재된 재능과 열정을 책임지고 찾아드리겠습니다. ★

LA 최고의 무용시설, LA 최고의 전문 강사진, 최고의 교육

www.koaladance.org
www.Balletjean.com
Tel: 323-428-4429